



## 지역 예술인들 “2014는 완생”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이남, 문지영, 김한민, 정주리, 진모영, 윤태호, 노희설, 전준혁.

2014년은 광주·전남 출신 예술인들의 활약이 눈부신 한해였다. 특히 순천 출신인 ‘명량’의 김한민 감독 등 영화 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올 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예술인들을 꼽아봤다.

올해 미술계에서는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45)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올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전시회를 열고, 가나아트 전관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작가는 내년 이탈리아 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받았다.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특별전에는 그동안 김아타(2009), 이우환·서수경(2011), 서정민(2013) 등 국내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여수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18)씨는 차세대 클래식 스타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2012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문씨는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수석 입학,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1월 제69회 스위스 제네바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청중상, 특별상까지 수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지난 3월 열린 제3회 다카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출신 소년 발레리노 전준혁(16)군은 세계적인 명문 영국로얄발레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인 남성 발레리노로는 처음으로 3년 정규 코스를 밟는다. 동양인 최초로 전역 장학금(1년 학비 5000만원)도 받았다.

세계 4대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리스트’ 파이널에 진출했던 전군은 뉴욕

**이이남 베니스 비엔날레 초대**  
**문지영 제네바콩쿠르 우승**  
**전준혁 英 로얄발레학교 입학**  
**김한민·정주리·진모영 감독**  
**‘명량’·‘남아...’ 극장가 강타**  
**윤태호 ‘미생’ 신드롬 일으켜**

YMGP 콩쿠르, 이탈리아 시실리 바로카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독일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서현일(29)씨는 모든 피아니스트들의 꿈인 베토벤 피아노 전공 연주에 도전, 눈길을 끌었다.

‘월광’ 등 베토벤 소나타 32곡을 9차례 연주회를 통해 선보이는 대장정이다. 지난 5월 첫 연주회를 비롯, 올해 3차례 진행됐으며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16만에 광주 연극계에 대통령상을 안긴 양정인(43) 연출과 배우 노희설(48)씨 역시 올해 빛나는 한해를 보낸 인물이다.

제27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 알·아리(대표 양태훈)의 ‘발톱을 깎아도’는 노인 문제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내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드문 여성 연출자로 알·아리 창단 멤버인 양씨는 연출상을 받았으며 방송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희설씨는 아내 정경야씨와 함께 작품에서 노부부로 출연, 남자연기상을 수상했다.

올해 광주·전남 출신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스크린을 뜨겁게 달궜다.

순천 출신 김한민(45) 감독의 영화 ‘명량’은 최종 극장 관객수 1761만명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영화 ‘아바타’를 뛰어넘어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썼다. 그는 제3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명량’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제51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기확상 등을 받았다. ‘명량’은 ▲역대 최고 일일 흥행기록(125만명)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달성(12일) ▲역대 최대 매출(157억원)이라는 진기록들을 써내려갔다.

여수여고를 졸업한 정주리 감독은 직접 시나리오를 쓴 상영영화 데뷔작으로 해외영화제에 초청된 행운이었다. 배우나·김새론·송새벽이 출연한 ‘도희야’로 제67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돼 찬사를 받았다. 정 감독은 지난 10월에는 스톡홀름 영화제 신인감독상을 받았으며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 여성영화인상 연출·시나리오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해남 출신 진모영(44) 감독의 영화 ‘남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지난 28일까지 누적 관객 355만507명을 기록하며 영화 ‘비긴 어게인’의 340만명을 제치고 역대 다양성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에 올랐다.

올해 안방극장 최고 화제작은 광주 출신 만화가 윤태호(45) 작가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미생’이었다. 직장인들의 평범한 이야기와 애환을 담담하게 그려낸 tvN드라마 ‘미생’은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 8.4%,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미생 신드롬’을 일으켰다.

특히 방송 한달 만에 만화 단행본은 100만부 넘게 팔리거나 누적 판매 200만부를 돌파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구분	예선 지정곡(3곡중 1곡)	본선 지정곡(3곡중 1곡)
초등부 1·2학년	예선 없음	1) W. A. Mozart Rondo for Piano in D Major, KV 485 2)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20 in G Major, Op. 49 No. 2 1st mov. 3) F. Kuhlau Piano Sonata in G Major, Op. 88 No. 2 3rd mov.
초등부 3·4학년	예선 없음 (단심)	1) L. van Beethoven 6 Variations über das Duett "nel cor piu non mi sento" aus der Oper: La Molinara von Paisiello in G Major, WoO 70 2) W. A. Mozart Piano Sonata No. 3 in B Major, KV 281 1st mov. 3) F. Chopin Grande Valse in A Major, Op. 42
초등부 5·6학년	예선 없음	1) F. Schubert Impromptu Op. 142 No. 3 2)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1 in f minor, Op. 2 No. 1 4th mov. 3) F. Chopin Scherzo No. 2 in b minor, Op. 31
중등부	1) F. Chopin Etude Op. 25 No. 12 2)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22 in F Major, Op. 54 1st mov. 3) F. Liszt Paganini Etuden 중 V.	1)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4 in E Major, Op. 7 1st mov. 2) R. Schumann Sonata No. 2 in g minor, Op. 22 1st mov. 3) L.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 16 in G Major, Op. 31 No. 1 1st mov.
고등부	1) F. Liszt E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중 No. 10 2) F. Liszt Trois Etudes de Concert 중 II. 3) F. Liszt Zwei Konzert Etuden 중 II. Gnomonreigen	1) L. van Beethoven 32 Variations in c minor, WoO 80 2) F. Liszt Paganini Etuden 중 VI. 3) F. Chopin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4th mov.

**성악독창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독주) :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합주)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중창·중주 : 자유곡 1곡**  
**합창 : 템포가 다른 자유곡 2곡**

**개최요강(음악부문)**

- 대회기간 : 2015년 4월 22일(수) ~ 6월 27일(토)
- 참가자격 :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 구분(음악부문)
  - 성악독창 2)피아노 3)바이올린 4)첼로 5)플루트 6)관악독주
  - 현악독주 8)기악독주 9)중창·합창 10)중주·합주(관악·현악·기악) 11)실용음악
- 심사 :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위원은 신청 마감후에 위촉함.
- 시상
  - 개인·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개인·단체 최고상, 합창·합주제 대상 :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참가신청
  - 기간 : 2015년 4월 8일(수) ~ 4월 15일(수)
  - 방법 : 인터넷, 우편,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
-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월 초 게재될 광주일보 사교(환송)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체 대회의요강은 3월 초에 발표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 참가부문은 양보(暗譜)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중 중단할 수 있음.
- 예·본선이 있는 부문은 참가자의 40%를 본선진출자로 선발하며, 기타 부문은 참가자의 30%만을 입상선으로 함.

**문의**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062)220-0541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

63 광주일보사

## 광주문화재단, 2015년 기금확충 적극 나선다

‘경영비전’ 5가지 추진 계획 밝혀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기금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정책연구기능을 강화, 예향이자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되찾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29일 전통문화관에서 제1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5년 업무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재단의 경영비전(“시민의 문화주체화, 광주 정신·문화의 허브”)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전략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동체 ▲문화트라이앵글로 독자성 확보 ▲광주문화 복

원(復權)을 위한 플랫폼 구축 ▲문화브랜드로 ‘글로벌 시대’개척 ▲나눔·도움의 대중정신으로 문화민주주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각 전략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연간 사업으로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탁 사업 19건, 자체 추진 사업 18건 등 총 37건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전통문화관 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관광 명소화와 함께 기금운영TF팀을 구성해 연간 16억원,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world.com